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기사단' 화려한 변신

최선아 / 2013-01-31 13:30:05

넥슨(대표 서민)은 31일 ‘메이플스토리’에서 '시그너스 리턴즈' 업데이트를 실시해 '시그너스 기사단' 계열의 캐릭터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시그너스 기사단 직업군의 전반적인 능력치가 상향 조정된다. 첫 번째로 개편된 '스트라이터' 캐릭터는 기존 번개 속성에 물의 힘이 더해진 파괴력 있는 스킬이 추가됐다. 신규 하이퍼 스킬 '해신강림'은 거대한 '해신'이 땅에서 솟구치는 화려한 효과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180레벨 이상의 이용자만 입장할 수 있는 고난이도 콘텐츠 '루타비스'의 '카오스 모드'가 열렸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고급 아이템인 '150제 장비'가 제공된다. 아울러 최고 레벨의 상한선이 250레벨로 확장되는 등 다양한 게임시스템이 업데이트된다.

메이플스토리 개발을 총괄하는 오한별 프로듀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스트라이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캐릭터 개편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오는 2월 20일까지 이벤트성 미니게임 '창공의 대추격전'을 플레이 한 이용자에게 '놀라운 긍정의 혼돈의 주문서', '정월 에디션 각인의 인장'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급한다. '창공의 대추격전'은 연을 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는 방식의 미니게임이다.

또한, 윷놀이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는 ‘멀티플레이 윷놀이’ 이벤트에서는 ‘윷놀이 의자’ 및 ‘3성 장비강화 주문서’ 등과 같은 아이템을 선물한다.

아울러 2월 2일 오후 2시 30분에는 스트라이커 캐릭터 개편 기념 핫타임 이벤트를 실시, 최고급 모자 아이템 및 훈장을 지급한다.

